

# 시나리오

메인 시나리오

작성자: 송설화

날짜	버전	내용
2024/05/30	1.0.0	썬 0~7 작성
2024/05/31	1.0.1	이장-> 촌장 변경
2024/06/02	1.0.2	썬 8,9 추가 작성
2024/06/03	1.0.3	썬 수정
2024/06/04	1.0.4	8 썬 이름변경 10 썬 추가
2024/06/06	1.0.5	썬 11~17 썬 추가
2024/06/08	1.0.6	예언석-> 예언의 석판 이름 변경

# 목 차

## 목차

#Scene0 필리프의 이름없는 언덕 .....	4
#Scene1 숲 .....	5
#Scene2 필리프 마을 밖 .....	5
#Scene3 필리프 마을 안 .....	6
#Scene3.1 필리프 마을 (촌장의 집) .....	6
#Scene4 성당 .....	8
#Scene5 필리프 마을 .....	8
#Scene6 촌장의 집 .....	9
#Scene7 필리프의 이름없는 언덕 .....	10
#Scene8 북쪽 산 방향 살리카 마을 .....	10
#Scene9 북쪽 산 크레시 마을 .....	11
#Scene10 북쪽 산 크레시 마을 (주점가) .....	11
#Scene11 북쪽 산 .....	12
#Scene12 크레시 마을 .....	14
#Scene13 산의 요물 등지 .....	16
#Scene14 메데시스 마을 .....	17
#Scene14.1 메데시스 마을 (촌장의집) .....	18
#Scene14.2 메데시스 마을 .....	19
#Scene14.3 메데시스 마을(감옥) .....	20
#Scene15 산 정상 .....	20
#Scene16 오를레앙 마을 .....	21
#Scene16.1 오를레앙 마을(촌장의집) .....	22
#Scene16.2 오를레앙 마을(여관) .....	23
#Scene17 오드레앙 마을 인근 들판 .....	24
#Scene17.1 마르그리트 마을 .....	26
#Scene17.2 마르그리트 마을(촌장의 집) .....	27

## #Scene0 필리프의 이름없는 언덕

---

온 세상이 그림자로 가득한 이곳 아라스 대륙의 남서쪽, 필리프의 어느 이름 없는 언덕 그 언덕에는 마치 호박에 박제된 곤충처럼, 수정체안에 갇혀있던 자가 있다

몇천년이 흐르고 그렇게 수정체에 갇힌 그에게 변화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때 즈음, 조그만 햇빛이 수정체를 따스하게 감싸왔다. 햇빛이 그의 눈을 비추자 수정 속 사람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와 동시에 그의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오며 어느 음성이 들려왔다.

발루아\_그대의 이름은 바렌이요, 나를 모욕한 자. 그대에게 불사의 저주를 내리노라!

천둥처럼 들려오는 누군가의 호통. 그와 동시에 수정체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낯선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주위는 고요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텅 빈 듯 어지러웠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듯했다

바렌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수정체 앞에는 낡고 거친 돌로 된 안내석이 있었지만 바렌은 그 문구들은 이해 하지 못한다  
바렌은 당장 알 수 있는 정보는 '바렌'이라는 지칭 뿐이다

바렌(독백)\_      바렌... 그게 나의 이름인가

바렌의 시선은 안내석 옆에 놓인 세 가지 무기에 멈췄다 은빛으로 빛나는 검, 고요한 힘이 느껴지는 지팡이,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활이었다. 무기들은 각각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고, 바렌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에 이끌렸다

바렌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 가지 무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바렌(독백)\_      (생각에 잠기며)이 무기들은 내 과거와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바렌은 검을 집어든다 그리고 그순간 손에익은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 느낀다  
바렌은 희망을 가지고 안내석에 적힌 마을로 향하기로 결심한다

바렌은 마을로 가기위해 숲에 들어간다 숲은 축축하고 서늘하며  
빛이 들어오지 않아 나무는 모두 말라있고 덤불은 마른 나뭇잎으로 이루어져있다

갑자기 덩불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며 몬스터들이 튀어나온다 바렌은 순간적으로 반응하며 검을 빼든다

바렌(독백)\_ 이 괴상한것들은 뭐지..?(검은 몬스터로 향해있다)

바렌은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고 무기를 사용했다 그의 동작은 자연스러웠고 강렬했다  
몬스터들은 거대한 송곳니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들이었지만 바렌은 하나씩 처치해 나갔다

바렌(독백)\_ (숨을 고르며)다 해치웠나..?

바렌은 몬스터를 처치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고 피투성이가 된채로 숲을 빠져나간다

바렌은 마을입구에 도착한다. 마을은 탄탄한 목재방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문앞에는 문지기가 입구를 지키고있다.

바렌이 문지기에게 다가가자 문지기는 놀란 눈으로 바렌을 바라본다.

문지기\_(놀란목소리)당신은..? 설마..?

바렌\_ (기쁜 목소리로)자네 나를 알고있는가?

문지기\_ 당연히 알고있죠! (가웃하며)그.. 어 아닌가..? 제가 아는분이란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문지기는 바렌이 지니고있는 무기를 발견한다

문지기: 무기를 보아하니 모험가님 이십니까?

(문을 열어주며) 요즘 일손이 부족한데 일단 들어오시죠

바렌\_ (실망한 목소리)고맙네..

문지기는 바렌에게 물어보고싶은게 많았지만 고민끝에 침묵한다

## #Scene3 필리프 마을 안

---

밖과 달리 마을안은 조용하고 평화롭다

바렌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둘 바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사람들눈에는 놀라움과 친숙한 표정을 하고있다 그리곤 조용하던 마을안은 사람들의 웅성이는 소리로 가득해진다

바렌(속마음)\_ (어색해하며)다들 왜 그러는 거지..? 근데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어..

바렌\_ (마을사람들을 쳐다보며) 혹시 오래된 수정체에 대해 아시는게  
있는지요..?

바렌의 얘기를 듣고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바렌이 실망하려는 찰나 한 마을 사람이 바렌에게 다가온다

마을사람 1\_ (상냥한 목소리로) 촌장님께 가보시는게 어떤가요? 그분이 가장 잘  
아실겁니다(촌장의 집방향으로 손을 뻗는다)

### #Scene3.1 필리프 마을 (촌장의 집)

---

마을사람들은 바렌을 촌장의 집으로 안내한다 바렌이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목소리가 들린다

촌장\_ (조용한 목소리로)들어오시게

바렌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촌장은 허공을 바라보고있다

촌장은 장님이지만 그의 눈에는 지혜가 깃들여 있다

바렌\_ (진지한 목소리) 촌장님.. 언덕위에 있는 수정체와 사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촌장\_ (생각에 잠기며)오래된 이야기지.. 그곳은 신성한 장소였어..  
하지만 이제는 잊혀졌지...

촌장은 말을 마치고 목을 가다듬는다 그러곤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촌장\_ 세상이 어둠에 잡아먹혔다네.  
우리의 왕, 그 또한 사라졌다네.

아아, 그리워라!  
아아, 보고파라!  
그의 백성은 목놓아 울었네.

그의 백성들이 목놓아 울은지 사흘 째,  
그들은 아름다운 보석을 찾아내었다네.

그의 백성은 그를 기억하였네.  
그의 백성은 그를 기리고있네.

세상이 어둠에 잡아먹혔다네.  
우리의 왕은 언제쯤 돌아오리오?

촌장의 곡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있었다

촌장\_ 내 이노래로 미루어보아.. 언덕에 존재하는 수정체는 오래된 왕을  
형상화한 이야기 같더군.  
어떠한 왕인지는 역사에도 묘사되어 있지않지만...  
백성들이라고 칭해지는 자들은 그를 아주 사랑했던 모양일세  
그렇기에 오래 전 사당도 지어진 듯하네..

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다

촌장\_ 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어... 워낙 오래 된 일이라서 말이지.

또, 그 주위에 마물들이 많아 접근을 하지 못한 지 오래라네.  
역사에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듯 보이는구만...  
성당에 가면 될걸세 가는길은 내 손녀 코렌틴이 안내 해줄 것이네..

바렌\_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촌장님

촌장\_ 나는 눈으로 그대를 볼 수 없지만, 그대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느낄 수 있네. 조심하게, 모험가여... 그대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렌은 신이라는 단어에 거부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유는 알수없기에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 #Scene4 성당

---

바렌과 코렌틴은 성당에 도착한다. 성당 내부는 고요하고 경건하다. 사제가 그들을 맞이한다

사제\_ (상냥한 목소리)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렌\_ (진지한 목소리)혹.. 언덕위에 있는 수정체와 사당과 옛날 왕에 대해 아시는게  
있지요..?

사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사제\_ 아라스 대륙의 전설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자'는 예언자로 알려져 있지요.

'생각하는 자, 예언하는 자'를 바렌, 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제는 남아있는 기록물과 초상화를 보여준다

바렌은 자신과 닮은 모습과 같은 이름으로 인해 묘한 기시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서에는 그의 재림이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라는걸 눈치채지 못한다

사제와의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갑자기 마을에 경보가 울리는 소리가 난다

바렌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뛰어간다

## #Scene5 필리프 마을

---



마을엔 몬스터가 습격을 하고 사람들은 비명소리로 가득하다

바렌은 예언의 석판에 적혀있던 기초적인 기술을 토대로 몬스터를 토벌한다

바렌(독백)\_ (마법을 사용하며)이기술.. 뭔가 익숙한 것 같군..

바렌은 마법을 사용해 모든 몬스터를 잡아 마을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소멸되었다고 여겨졌던 '마법'과 '기술'의 존재를 목격하고 사제에게 이야기한다

마을 사람들\_ (흥분하며) 사제님 그가 사용한 기술을 보셨나요?

혹시 저희의 생각했던 그분이 맞지않을까요..?

사제는 바렌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교황청에 이를 보고한다

사제(독백)\_ (의심스러운 말투)이 정보는 반드시 교황청에 보고해야겠군...

## #Scene6 촌장의 집

---

촌장의 부름으로 바렌은 촌장의 집으로 간다

바렌의 소리를 듣고 촌장이 바렌에게 다가와 반긴다

촌장\_ (감사하는 목소리로)마을을 지켜주어서 정말 고맙네.

전에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네.

사실 사당은 수정체의 뒷면을 가려놓은 채로 지어졌지..

그 뒷면에는 알 수 없는 예언이 적혀있다고 하더군.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

바렌\_ (고개를 숙이며)네 감사합니다

바렌은 촌장의 말대로 수정체가 있던 장소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기시작한다

## #Scene7 필리프의 이름없는 언덕

---

바렌은 마을을 떠나 다시 수정체에 도달한다

낡은 사당을 가뿐히 부수고 자신이 잠들어있었던 수정체의 뒷면에 적힌 예언 글을읽는다

바렌\_ (중얼거리며)수정체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보이는 산 꼭대기에 도달하면  
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라..

바렌은 주변을 둘러보다 북쪽에있는 산꼭대기로 발걸음을 옮긴다

북쪽산으로 가는길은 멀고 험난했으며 바렌은 계속되는 전투에 지쳐갈때쯤  
저 멀리 인가가 형성되어있는것을 발견한다

## #Scene8 북쪽 산 방향 살리카 마을

---

바렌은 지친몸을 이끌고 살리카 마을로 들어간다

주변에는 큰 호수가 있어 나름 살기 좋은 마을이다. 이곳에도 약간의 방벽이 있지만, 상주하고 있는 모험가가 많아  
보안은 허술한 편이다모습을 지니고있으며 마을이라 불리기엔 민망할정도로 작은규모로되어있다

이때 외진 골목에서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바렌앞으로 다가온다

주정뱅이\_ (딸꾹거리다)이봐! 나는 생각하는 신 따위 믿지 않네 자네도 동의하는가?

주정뱅이는 바렌을보며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마을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누워있던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않는다

지나가던 남성\_ (고개를 저으며)매일 저러고 있으니 무시하세요

주정뱅이\_ (바렌을 바라보며)당신이 가려는곳 내가 안내해주지  
지금 따라오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

바렌은 주정뱅이가 향한 방향을 한참을 쳐다보다 주정뱅이를 향해 뛰어간다

## #Scene9 북쪽 산 크레시 마을

---

주정뱅이를 따라 도착한곳은 크레시 마을이다 이곳은 대체로 나무로 된 하얀 건물들로 이루어져있었으며 마을주변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와 있다

사람들은 해가 드는 곳 마다 누워 일광욕을 하고 있다

바렌(독백)\_ (주변을 둘러보며)이곳은 다른 마을에 비해 해가 꽤 들어오는군..

바렌이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이에 주정뱅이는 건물들중 가장 구석진 주점으로 들어간다

## #Scene10 북쪽 산 크레시 마을 (주점가)

---

주정뱅이를 따라 들어간 주점은 시끌벅적하고 많은 모험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있다

술집 주인\_ 어서오세요 어떤걸로 드릴까요?

바렌\_ (주정뱅이를 가르키며)저 자랑 같은걸로 부탁하네

바렌은 필리프 마을 촌장에게 받았던 재화를 건넨다

술집 주인\_ (술을 따르며)그런데 처음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나요

바렌\_ 그냥 평범한 일개 모험가 일세..

주정뱅이는 바렌을 잡고 자신이 있던 자리로 끌고온다

주정뱅이\_ (한 남성의 가리킨다)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이 자가 '완전한 빛'을 보았다는 사람이야

주점의 사람들은 '빛'이라는 단어에 동요한다

모험가 1\_ (비웃으며) 빛이 사라진 지 얼마나 지났는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남성\_ (단호하게) 북쪽 산을 오르면 나오는 마을은 이미 빛을 섬기고  
있소. 나 또한 그 마을 출신이오.  
빛이 다시금 생겨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본래의 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소.

바렌은 남성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한다

바렌\_ (진지하게) 내가 아는 '생각하는 자' 이외의 신이 존재하는가?

남성\_ (확신에 찬 목소리) 분명히 존재하오. 교황청에서  
알려주지 않는 역사가 있소

남성은 바렌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일순간 표정이 일그러진다

남성\_ (격분하며)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신'의 주적이지요!

남자는 칼을 빼들어 바렌을 공격한다

바렌은 그동안 전투로 인해 강해진 탓인지 그를 가볍게 제지한다

바렌\_ (차분하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요?

남성\_ (비웃으며) 그걸 말할 바에 죽음을 택하겠소

남성은 바렌에게 침을 뱉고 바렌이 추춤대는 틈을 타 도망친다

시끄러웠던 주점은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바렌은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라곤 정보를 찾기 위해 떠나는 것 뿐이기에  
섬뜩한 마음으로 남성이 말했던 북쪽 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바렌은 험난한 북쪽 산으로 향한다. 길은 거칠고 고도의 높낮이는 심하다

바렌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길을 이어간다

바렌(독백)\_      여기선 멈출수없어 계속 나아가자

바렌은 북쪽 산을 오르며,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는 크레시 마을을 발견한다

바렌(독백)\_      저 빛... 오랜만에 보는 찬란한 빛이야. 저곳이 크레시 마을인가?  
예언의 석판이 있는 곳일지도..

바렌은 순간 이전 주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린듯 표정이 어두워진다

바렌(독백)\_      왜 나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공격했던 것일까...  
(고개를 저으며)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을 거야.

바렌은 희망을 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간다

## #Scene12 크레시 마을

하늘엔 햇빛이 내리고 건물또한 하얀색으로 마치 어둠이 드리운 세계와 정 반대의 궤를 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마을의 모습은 기괴하다. 마을 주민들은 햇빛을 바라보며 웃고 있고, 마을의 경계벽은 무너져 너덜거리고 있으며 문지기 또한 보이지 않는다

바렌(독백)\_ 이 마을은 뭐가 이렇게 이상한것인가..? 모든사람들이 햇빛을 보고 웃고있다니.. 예언의 석판이 이곳에 있는건가..?

바렌은 예언의 석판의 위치를 묻기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자, 샬리카 마을에서 봤던 남성이 그를 알아보고 소리친다

남성\_ (바렌을 가르키며)저기 그놈이야! 우리가 찾던 자다!!

바렌 (양손을 펼치며)자..잠깐 진정하게 난 당신들의 해를 끼치려는게 아니다!

소란을 듣고 주민들이 손에 도끼를 들고 뛰어오며 바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바렌은 필사적으로 방어하며 반격한다.

주민들                    모두 저자를 공격하라!! 발루아의 이름으로!

바렌(독백) 발루아 라는자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화나 난것인가..?

바렌은 빠르게 반응하며 도끼를 피하고, 손짓으로 마법을 발동해 남자를 제압했다.

바렌\_ (방어를하며)모..모두 진정하게.. 난 당신들과 싸우려는게 아닐세!

주민들은 바렌이 어떠한 말은 해도 무시하며 달려든다 바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없이 대항한다

주민들은 힘의 차이를 느꼈는지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주민들이 전부 도망간다 이때 한 아이가 도망가다 넘어지게 되고 다친 다리로 기어가며 도망친다

아이\_ (울먹이며 소리친다)누가 좀 살려주세요!!

바렌은 아이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어루만진다

바렌\_ 안심하렴 난 너를 해치지 않는다네..

바렌은 쪼그려 앉아 아이의 시선을 맞춰 쳐다본다 아이는 놀란눈으로 꿈뻑거리며 쳐다보다 이내 진정하게된다

바렌\_ 무슨일이 일어난건지 아는게 있는가?

아이\_ 양굴렘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모두가 이상해 졌어요  
그분이 예언의 석판 이라는걸 모조리 부수겠다? 라고 말하고 떠났어요

어디선가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이 뛰어온다

아이의 부모\_ (울먹이며)제발 저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바렌\_ 이 마을의 예언의 석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양굴렘은 어디로 갔는지  
알려준다면 아이를 보내주겠소

아이의 부모는 두려움의 떨며 대답한다

아이의 부모\_                    예언의 석판은 산의 요물 동지 옆에 있어요. 앙굴렘은 중부 마을  
   메데시스로 갔고요

바렌\_                                (한숨을 쉬며)알겠소 아이는 무사하네..

바렌은 아이를 보고 싱긋 웃더니 굽혔던 다리를 펴고 마을을 등지고 산의 요물 동지로 떠난다 아이의 부모는  
바렌이 떠나자 아이에게 달려가 안는다

## #Scene13 산의 요물 동지

---

바렌은 수많은 몬스터를 잡으며 우여곡절끝에 산의 요물 동지에 도착한다 그곳엔 괴물이 어슬렁거리며 강력한  
힘을 뽐내듯 거친 숨을 내뿔었다 괴물의 뒤에는 그토록 찾던 예언의 석판이 살며시 반짝였다

바렌(독백)\_                        이 몬스터 때문에 앙굴렘 이라는자는 이곳의 예언의 석판을 부수지  
   못했던것인가..?

몬스터는 흉악하고 무서웠지만 자신이 누구지에 대한 실마리는 저 예언의 석판에 적혀있기에 괴물에게 다가간다

바렌(독백)\_                        (눈을 질끈 감는다)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저 예언의 석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

바렌은 온 힘을 다해 괴물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괴물의 예리한 발톱은 바렌을 향해 번뜩였고, 거대한 턱은 마치 지구를 삼킬 듯이 크게 벌어졌다.

바렌의 의지는 극한의 시험대에 올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기술과 마법을 총동원하여 괴물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바렌(독백)\_ 이길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해

끝내 바렌은 괴물을 쓰러뜨렸다. 그의 몸은 피로에 지쳤지만, 승리의 기쁨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한 층 강해진 느낌을 받으며, 바렌은 천천히 예언의 석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바렌(독백)\_ (예언의 석판에 손을 올리며) 이제... 나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예언의 석판에는 바렌의 기억 한 칸을 자극하는 여러 문구들이 적혀있었다 과거의 누군가는 바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듯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해 가기엔 바렌의 능력은 아직 부족했다

바렌은 여러 가지 기술 중 선택을 해야 했고, 고심 끝에 결론에 도달해 하나를 선택했다. 선택을 마친 바렌은 예언의 석판 최하단에 적혀있는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

바렌(독백)\_ 그를 섬기는 자를 찾아라. 그렇게 된다면 너 자신을 알게 되리라.. 라니  
그를 섬기는 자... 아마도 앙굴렘을 뜻하는 것이겠지

바렌은 서둘러 앙굴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바렌(독백)\_ 서둘러야 해 앙굴렘을 찾는다면, 나에 대한 진실을 알게겠군..

바렌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며 앙굴렘이 있다는 오를레앙 마을로 발걸음을 옮긴다

바렌은 산과 숲을 지나 마을에 메데시스 마을에 도착한다

마을은 큰 혼동에

빠져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빛의 신'을 따르겠다며 이탈한 상태다 길거리 곳곳에서 '빛의 신'을 전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바렌(독백)\_ (마을을 둘러보며)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예언의 석판이 위험할지도 빨리 촌장을 찾아가야 겠군

바렌은 곧장 촌장에게 찾아간다

#### #Scene14.1 메데시스 마을 (촌장의집)

---

바렌은 마을 가운데있는 큰 집에 들어가 인사를 한다

바렌\_ 안녕하세요 촌장님 혹 예언의 석판에 대해 할 수 있는가요?  
(걱정하며)혹시 예언의 석판이 손상이라도 된게 아닌지요..?

가필드\_ 어서오게 걱정말게나 예언의 석판은 안전하네  
앙굴렘 이라는자가 나를 찾아와 예언의 석판의 위치를 묻고 협박했지만,  
나는 생각하는 자를 믿기에 정보를 넘기지 않았네

바렌\_ 다행이군요. 그런데 그자가 쉽게 물러났나요..?

가필드\_ 그는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네. 동쪽 산 정상에 있는 '빛의 사도'를  
죽이지 않는다면 물러나겠다고 했지  
혹시 그 '빛의 사도'를 물리쳐주겠나? 그러면 예언의 석판을 넘겨주겠네

바렌\_

예.. 알겠습니다

바렌은 동쪽 산 정상을 향하기위해 집을 나선다

## #Scene14.2 메데시스 마을

---

바렌은 '빛의 사도'를 물리치기 위해 출발하려 하지만, 마을을 나서려는 그를 신도들이 극렬히 막아선다

산도들\_ (길을 막으며)빛의 사도를 죽이지 마라!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바렌\_ 비켜주시지요...

산도들\_ 싫다!! 이 이상 나아가면 목숨을 빼앗겠다!!

바렌과 신도들은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그 모습을 본 가필드는 소리친다

가필드\_ (근엄하게)그만!! 언제까지 마을사람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주게 할겐가!!  
소란을 일으킨 죄로 이자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거라!

가필드의 기사들이 신도들과 바렌을 감옥으로 끌고간다 가필드는 바렌의 손에 몰래 종이조각을 손에 쥐어준다

## #Scene14.3 메데시스 마을(감옥)

---

바렌은 습하고 굽굽한 지하감옥에 들어온다 어쩌서 인지 바렌의 감옥을 지키는자는 없다 그리고 가필드가 몰래줬던 종이를 펼쳐보고 읽기시작했다

바렌(독백)\_       내가 몰래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위해 일부로 가둔것이라니..  
비밀 통로까지 자세하게 적어두셨군..

바렌은 써있는 종이에 맞춰 비밀통로로 감옥에 빠져나온다 방벽의 작은 개구멍을 통해 나가자, '빛의 사도'를 토벌하러 모인 모험가들이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티앙\_       나는 저 멀리 마르그리트 마을 출신이야! 촌장의 아들이지

바렌\_               (끄덕이며)마그리트.. 처음 들어보는 마을이군 힘을합쳐 함께 싸워보자네

바렌과 모험가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산 정상으로 이동한다

## #Scene15 산 정상

---

산 정상에 올라가니 빛의 사도가 있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혼자아 아닌 탓에 다같이 합을 맞춰 바렌과 모험가들은 '빛의 사도'와의 전투에 승리한다

바렌\_               다들 고생 많았소 .. 이제 돌아가자네

많은 모험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빛의 사도가 죽었다는 소식은 마을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지만 빛의 신 신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소식을 듣지 못한다

그렇기에 앙굴렘에게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

바렌은 예언의 석판을 향해 이동해 예언의 석판을 읽기 시작했다

바렌(독백)\_ 자신의 힘을 시험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남쪽 마을 어귀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만큼 대가가 따를 것이요, 그대는 도전할 텐가? 도전한다면 다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니..

바렌은 고민할 틈 없이 남쪽으로 이동할 결심을 한다

바렌(독백)\_ 다음 목적지는 남부 마을 오를레앙이군.. 서둘러야겠군

바렌은 발걸음을 옮겨 다음마을로 이동한다

## #Scene16 오를레앙 마을

---

바렌은 산과 숲을 지나 몬스터를 잡으며 마을에 도착하지만, 마을의 상황은 참혹하다. 집들은 불타고 있으며, 길에는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바렌(독백)\_ (충격과 분노로)이..이게 무슨일인가..

바렌은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혼란을 수습하려 노력한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며 혼란 속에 있다

바렌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으로부터 촌장의 집이 공격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촌장의 집으로 이동한다

## #Scene16.1 오를레앙 마을(촌장의집)

---

촌장은 무수한 고문을 받은 듯,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로 쓰러져 있다 바렌은 촌장의 상태를 보곤 달려간다

바렌\_ 촌장님, 괜찮소? 제발 정신을 차리시오!

촌장\_ (힘겹게 눈을뜨며)오..모험가 이신가..? 지금 몸이 말을 안듣고있네..  
이몸좀 살려주시게나..

촌장은 눈을 천천히 감았고 바렌은 촌장을 업고 마을 치료실을 찾아 뛰어다닌다 그중 여관이라 적혀있는 제일 큰 건물로 들어간다

## #Scene16.2 오를레앙 마을(여관)

---

다행이 여관은 큰피해를 입지 않았고 치료사도 무사해 보인다  
치료사를 보더니 급하게 달려간다

바렌은

바렌\_ (다급하게)여기 촌장님좀 봐주게!!

치료사\_ (놀라며)상태가 많이 좋지않네요 이곳에 눕혀주세요!!

바렌은 촌장을 침대에 눕히고 상태를 지켜본다

치료사\_ 그래도 늦지 않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촌장의 응급처치는 빠르게 진행된다 촌장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는듯 보이더니 이내 눈을 떴다

촌장\_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것이오..

바렌\_ (안심한 표정)촌장님, 앙굴렘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촌장은 바렌의 질문을 듣자마자 신에게 속죄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후회가 가득하다

촌장\_ 난... 앙굴렘에게 예언의 석판의 장소를 말해버렸소. 그놈의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했소. 예언의 석판이 파괴되면 우리는 모두 끝장이오 제발, 그를 저지해주시오...

촌장은 그 말을 남기고 기절한다. 치료사는 촌장을 돌보며 바렌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낸다

치료사\_ 촌장을 믿으세요. 그리고 꼭 앙굴렘을 막아야 합니다

바렌은 촌장을 뒤로 하고, 앙굴렘을 쫓아 발걸음을 서둘러 옮긴다. 앙굴렘이 예언의 석판을 파괴하기 위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바렌은 더 이상의 파괴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그를 추격한다

바렌(독백)\_ 앙굴렘,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소

바렌은 오를레앙 마을을 뒤로 하고, 앙굴렘의 흔적을 따라 길을 나선다

## #Scene17 오드레앙 마을 인근 들판

---

바렌은 빛이 희미하게 내려오는 길을 따라가며, 앙굴렘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에 도착한다. 앙굴렘은 예언의 석판 앞에서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바렌\_ (소리치며)멈춰거라! 앙굴렘!

앙굴렘\_ (비웃으며)바렌,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바렌\_ 어..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은겐가..?

앙굴렘\_ (무기를 잡으며)곧 죽을 네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앙굴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바렌에게 공격을 시작한다. 둘은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앙굴렘은 강력한 마법과 기술로 바렌을 압도하려 하지만, 바렌은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다. 전투는 치열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힘을 시험하며 격돌한다

바렌\_ (숨을 고르며)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앙굴렘의 빈틈으로 바렌의 공격이 들어갔다

앙굴렘\_ 으윽.. 이..이자식이!!

우여곡절 끝에 바렌은 승기를 잡고 앙굴렘을 쓰러뜨린다. 앙굴렘은 쓰러진 상태에서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는다

앙굴렘\_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난 그저 사제들 중 하나일 뿐이다  
'빛의 신'을 따르는 사제는 총 12 명이다. 나머지 사제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 보시지

앙굴렘은 비웃음을 남기며 죽음을 맞이한다. 그의 몸에서 빛의 신이 내린 가호 결정체가 떠오른다. 바렌은 결심을 굳히고 그 결정을 흡수해 빛 저항력을 강화한다

바렌은 예언의 석판으로 다가간다. 앙굴렘의 공격으로 금이 갔지만 다행히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다.  
바렌은 석판의 힘을 흡수하며 마지막 문단을 읽는다

바렌(독백)\_ 축하하네, 그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도다!  
하지만 이 것은 알파일 뿐이요, 오메가의 길로 가기엔 아직 멀었다네 그대는  
하늘에 가까워져야만 보이는 빛과 물을 건너 존재하는 마을에 다다라야 한다네.  
자네와 함께 칼을 겨누는 귀인이 있을것이라니..

바렌은 마르그리트 마을과 크리스티앙을 떠올린다

바렌(독백)\_                    크리스티앙은 자신의 영웅담을 들려주기 위해 마르그리트 마을로  
돌아갔다 했으니.. 목적지는 마르그리트 마을이겠군..  
크리스티앙과 다시 만날 시간이군

바렌은 앙굴렘과의 싸움에서 얻은 정보를 되새기며, 서둘러 마르그리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의 앞에는 더  
많은 사제들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바렌은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다

## #Scene17.1 마르그리트 마을

---

바렌은 해안가에 있는 마르그리트 마을에 도착한다. 어업과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다른 마을보다 발전된  
모습이다. 희귀한 장신구와 장식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바렌(독백)\_                    (마을을 둘러보며)이렇게 발전한 곳이었나? 처음 오는 곳인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드는군..

바렌은 잠시 생각에 잠겨 마을 안을 정처 없이 떠돈다 그때 근처 노상 선술집에서 환호소리가 들려온다. 바렌은  
호기심에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본다

바렌은 인파 속에서 이야기꾼을 보며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쳐다본다

바렌\_                            이 목소리... 크리스티앙..?

크리스티앙은 메데시스 마을에서 만난 인물로,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바렌을 발견하고 펄쩍 뛰며  
반가워한다

크리스티앙\_                   바렌! 여기서 만나다니! (소리치며)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나와  
등을 맞대고 싸운 전투의 일등공신입니다!

크리스티앙의 이야기는 반쯤 왜곡되었지만, 관중은 즐거워하며 환호한다 이야기가 끝난 후, 바렌과 크리스티앙은  
둘만 남아 럼주 한 잔을 하며 회포를 푼다

바렌\_                           (술잔을 들며)크리스티앙, 너의 영웅담은 여전히하군. 하지만 반가운 건 사실일세  
크리스티앙\_                   하하! 너도 많이 변하지 않았구나, 바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크리스티앙은 만취해 휘청거린다. 바렌은 그를 부축하고 그의 수수께끼 같은 방향  
지시에 따라 이동한다

## #Scene17.2 마르그리트 마을(촌장의 집)

---

바렌과 크리스티앙은 마르그리트 마을의 촌장 집에 도착한다. 모두가 잠든 시간, 바렌은 문을 두드린다

메이드\_                       (문을 열며 약간의 짜증을 내며)이 시간에 누구신가요..?  
크리스티앙\_                   (바렌을 가리키며)이분은 내 맹우요 극진히 대해라!  
메이드\_                       네! 알겠습니다 모험가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바렌은 윗층 손님방에 들어가 오랜만에 느끼는 포근함에 긴장을 풀고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바렌\_

(침대에 누우며)오랜만에 이런 편안함을 느끼는군.. 내일을 위해 잠시라도  
쉬어야겠다

바렌은 잠시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진다